

21C 대학 무용교육과정을 위한 패러다임 연구

신 은 경*

Abstract

The Study on a Paradigm for Dance Curriculum of Higher Education in 21st Century

Shin Eun-kyung (Ewha Womans Univ.)

The images of globalized dances, ethnic dances, multi-cultu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re penetrating into dance education, dance criticism, dance media and others. These ideas are rapidly spreading over our fluid society and being theorized by dance educators, dance scholars and artists. It seems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unified by "world dances." A country which is not equipped with knowledge and cultures will surely fall behind the times when countries are competing with others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cultures. Korean universities are no exception. Such a situation does not call for gradual changes but radical innovation which shall alter the paradigm of dance education. Every university is expected to attempting to change it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troduce the departmental school system and the multiple-major system, reorganize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conduct self-evaluation. However, such an attempt is not being applied to the real education curriculum. In this situation, a university must answer to these questions: How can dances re-defined? How can we prove the rightfulness of dances comprising other academic disciplines?

At this juncture, this thesis is aim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dance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demands for the change in dance education, and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dance curricula. The findings of this thesis are list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dance department (school) of a university should exchange its school system and academic affairs with other major domestic and overseas universities based on benchmarking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set up curriculum with a focus on professional knowledg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s well as on social issues such as the use of leisure

* 이화여대 무용과

time.

Second, the dance department (school) of a university should make an effort to plan its changes and cooperation, be prepared for planned changes, and execute and maintain the changes. Universities should recognize, encourage, and pursue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overall dance education while inferring and maintaining the thoughts of the academic system of dances. It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he opening of universities and for cooperative education in dances with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dance-related industries.

Third, the concept of art education should be applied to all the subjects of dance education. Accordingly, the art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 a focus on choreography, not on practical skills stressed in the past, and on the connection of all the artistic forms of dance.

Fourth, the art education shall be executed in a development-directed manner, concentrating on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concepts such as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phases of dance training and on understanding of art education process and changes.

I . 서 언

세계 춤, 민족 춤, 다문화주의, 국제화 등의 이미지는 무용교육, 무용비평, 무용미디어 등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 개념들은 유동적인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어가며 무용교육자, 무용학자, 예술가 등을 통해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되고 있다. 앞으로 21세기는 “세계 무용”으로 통합되어질 것이다. 지식과 정보, 문화를 기반으로 하나 되어 경쟁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세계 국가 대열에서 낙오될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의 대학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급진적인 혁신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마다 입학제도, 학부제 시행, 복수전공제, 행정적 구조조정, 대학평가 등의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보면 구태의연하고, 변화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무용의 분야를 재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용 분야가 타 학문 분야를 포함하는 것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Penelope Hanstein(1986)은 무용의 후기 현대적 교육과정의 특징을 “역사적, 문화적 전망, 통찰력 있는 비평의 기교, 예술형식으로서의 무용의 본질에 대한 해답, 예술적 개념의 인식과 탐구, 변형, 구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용교육은 극장 예술로서의 성향을 두드러지게 반영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실기전문

인력으로 준비시키는 것과 자유주의 예술교육 안에서의 방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경향이 크다.

대학교육은 과거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전통적인 교육을 넘어서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즉 총체적인 문화 창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대학에서의 미래 지향적인 무용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3P(Person, Process, Products)”가 근본적, 총체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가르치는 무용교수(Person)가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변화되고, 무용교육과정(Process)이 변화될 때 새로운 무용인재들(Products)이 배출된다. 앞으로 한국 대학의 무용교육이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국내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이다. 21C를 Competition, Customer, Change, 즉 ‘3C’ 시대라고 말하듯이, 교육의 고객인 학생들이 해외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를 위해 신속히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대학은 낙오될 것이기에 무용교육과정 개혁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무용교육에 대한 내적인 문제와 현 사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이미 도래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요청하는 대학 무용교육의 변화들, 그리고 변화하는 대학 무용교육과정 개선에 필요로 하는 일반적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 대학 무용교육의 변화 요구

역사적으로 대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는 변신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학은 그 내용과 조직이 크게 다양화, 다변화되어왔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이 복잡화된다 하더라도 대학은 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교육을 행하여 인간을 만들며, 전문가적 훈련을 병행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기능은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능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연구하는 연구기능, 그리고 사회봉사의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연구중심 대학들이 탄생하여 연구의 실적과 발전에는 크게 공헌을 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연구에만 주력한 결과 학부학생들의 강의와 교육은 소홀히 하여 학부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과 더불어 교육내용 및 현재 실생활과의 관련성 문제 등에 따른 현실적 차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미래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 그리고 ‘기초’와 ‘응용’을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탐구와 이해 그리고 이성의 정련 화를 위한 장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며 과학 분야이든 기술공학 분야이든 예술분야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핵심기초능력의 강화를 요구한다.

이에 독일연방교육과학연구부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 요구되는 핵심 능력(key skills for the year 2020)으로 다국 문화 이해능력(inter-cultural skills), 심리사회적(대인관계)능력(psychological skills), 외국어능력(foreign language skills), 기술적·방법론적 학습능력(technological and methodological learning skills), 매체 활용능력(media competence) 그리고 특정 부문과 관련된 능력(specific subject-related skill) 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초능력은 학생들이 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때 학제 간 연구와 같은 유연한 구조로서 새로운 지식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알려지지 않은 무용지식의 탐구 기능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대학의 무용교육은 교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지만 21세기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실(unknown facts)이나, 아직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 문제(unknown answers)에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무용교육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무용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한 가지 해답보다 여러 개의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을 찾아내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미지의 것에 대한 해답을 창의적으로 찾아내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서로 나누고 팀이 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시대에는 많은 지식(knowledge)을 가진 자 보다 지혜(wisdom)를 가진 자를 더 필요로 하기에, 새 시대의 무용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 해답을 끌어내는 능력, 의사전달 능력 외에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도전하는 학생의 태도를 중요하게 개발해야 한다.

셋째, 무용훈련보다는 무용교육이라는 개념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 세계의 무용교육환경은 지식전달식 교육에서 지식정보 분석과 적용 중심의 교육으로 그 방법과 내용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과목 지식(subject knowledge)”보다는 “과정지식(process knowledge)”을 필요로 한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암기와 훈련이 주된 학습방법이었지만, 현 시대의 교육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사고를 배양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협동심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 정보 자체의 획득보다는 지식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무용을 통해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동기를 유발하여 그 분야에서 더욱 뛰어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의 장점을 찾아 목표에 집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넷째, 평생무용교육의 센터로서의 역할 담당을 요구한다.

엘빈 토플러는 문맹이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배우고, 아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갱신하며, 계속해서 배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21세기는 배우는 사회(learning society)라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무용과에서는 평생교육, 삶의 질, 그리고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체계를 세움으로서 문화사회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졸업생들을 평생 관리하고 재교육하는 사후관리(after service) 시스템을 강구하여 사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범위한 학부제 통합 교육을 요구한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다학문간(inter-disciplinary)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학문과 기술의 종합과 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는 대학이 구분한 학과별로 나누어진 협의의 지식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는 다면적 실력을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므로 대학은 광역의 인접 전공 지식을 학부에서 이수하게 함으로서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도 박사학위를 위한 학문중심의 석사과정 외에 실무형 석사와 석사를 통합하는 학·석사 연계제도의 확대 등 실무형 대학원 교육과정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무용을 통한 인간가치관 교육을 요구한다.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웨이퍼는 21세기를 “점점 진리가 없는 교육(education without truth)을 하게 되고, 의미 없는 사랑(love with meaning)을 하며, 목적 없이 돈만 모으고(wealth without purpose), 죄의식 없이 살인(murder without guilty)하며,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21세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못지않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된 국제시민으로서의 예절, 인격,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이 시대에 흔히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초등학교 어린 시기에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학교육에서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은 정직하고 유

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무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무용이 긍정적 가치관, 자기표현, 자긍심 고취 등의 인격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노력과 인내, 자기 존중, 책임감 등 시민 정신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거대하고 빠른 매스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한 문화의 파괴나 창조성을 질식시키는 등, 과학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용교육자들은 인간다운 예술로서의 무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심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대학 무용교육과정의 논쟁

대학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 및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통적이고 상아탑적인 대학의 모습과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대학으로의 변화요구 사이에 대학은 무엇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학과나 단과 대학과 연계된 가장 큰 문제로는 기본 교육이념의 재정립과 방향성의 설정 문제이다. 최근 학과들이 사회의 요구와 유행의 변화의 따라 수시로 학교의 교과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선진국가의 대학교육은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과 시스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학예(liberal arts)의 교육 이념과 지도자, 엘리트 양성, 그리고 전문인인 양성하는 목적과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김재은, 2004).

따라서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냐가 바로 내일의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자리 매김을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전쟁”에 비유될 정도로 교육과정 개혁에는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이란 계획적으로 가치와 지식의 배분과정을 다루는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지식이 선정되고, 조직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보편적이기에(전성연, 1999), 대학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직면하게 된다.

- ① 무용교육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② 무엇이 무용지식으로 간주되는가?
- ③ 무용 교육과정이 학문성을 강조하는가, 취업 또는 실용성을 강조하는가?
- ④ 연구중심 대학인가, 교육중심 대학인가?

⑤ 대학 무용과(학부)의 학사운영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 또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 등이다.

전통적으로 무용교육과정은 대개 실기과목과 이론으로 양분되어지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원성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 창출의 기능이 강조되고, 이론과 실체가 조화된 무용교육과정을 요구하는 후기 현대적 패러다임의 총체적, 다원적 접근은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대한 조화롭고 상호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무용과(학부) 프로그램은 예술형식으로서의 무용 연구에 대한 발견 지향적 접근방식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형성되어가는 지식의 본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은 이러한 탐구의 부산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Betsey Gibbons, 1992).

21C에 무용과 예술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기술과 과학 분야의 가속적인 발달과, 팽창해 가는 문화 교류적인 다양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모습의 변화는 대학교육안에서의 무용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제시함에 따라 무용교육과정도 재평가와 변화에 개방되어야 한다. 현재 유럽식 미국 무용교육 틀이 널리 보급하는 것은 첫째, 예술의 지식과 훈련을 제공하는 철학으로부터 문화 간 또는 세계적 조망으로의 변화, 둘째로는 지역사회에 보급된 무용장르에 대해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무용지식은 사회과학과 인간다움의 “reinform”일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은 무용의 각 분야를 집결하고, 둘 이상의 학문 분야에 걸쳐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팀 티칭을 조장하며, 수업을 교환하는 형식을 활용한다. 그리고 사회봉사와 학문적 연구의 통합은 학생들에게 캠퍼스 밖에서 지식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의무적인 internship기간 전에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rancine Lee Morin, 1992).

앞으로 시도될 통합된 무용교육과정은 무용이론과 실제, 무용형식의 논의와 연습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관계와 연관시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한국 대학 무용교육의 제도적 변화의 요구

1. 국가의 학부제 도입정책

세계적으로 대학의 사명과 기능 그리고 지배구조 등에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오늘날 대학과 교수 개인 간, 인문학과 과학 간, 학과와 연구소간, 교육과 연구 활동 간, 대학원과 학부교육 간의 적정한 조율과 균형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학과 대학원의 연구 활동 강조에 따른 학부교육의 저조한 발전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큰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정성기, 2000).

이미 우리나라도 학문 영역의 구분으로서 대표적이었던 학과라는 명칭보다는 학부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고 있다. 학과체제는 단일화, 세분화, 획일성, 폐쇄성을 특성으로 한다면, 학부체제는 다양화, 특성화, 통합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학부제 도입에 대한 국가의 의도와 취지는 대학의 다양화, 대학의 특성화, 소비자 선택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대학 등이며, 그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 제1유형: 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부과정 학생이 특정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학생이 자유롭게 폭 넓은 교육을 받게 하는 대학모형
- 제2유형: 사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관리자를 위하여 몇 개의 학문분야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전공하게 하는 대학모형
- 제3유형: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전문 교육에 치중하는 대학모형
- 제4유형: 음악과 미술, 연주, 비평 등의 예술교육에 있어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모형
- 제5유형: 산업현장에 종사할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현장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모형
- 제6유형: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나 전공이수학점을 총 이수학점의 1/4-1/6수준으로 최소화하여, 학생이 원하면 다 전공, 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한 대학모형

2. 학부제 무용교육과정의 기준 및 지침

대학 교육과정 변화의 주도적 역할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의 대학에 대한 통

제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시대의 대학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려면 대학조직 구조와 경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Walford, 199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의 규제는 자율과 책무 성을 강조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기존의 직접적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대학이 국가의 학부제 정책을 수용한 부분은 유사학과의 통합, 이수학점 구성의 다양화, 전공 선택 시기와 방식의 다양화, 복수전공과 교과목 선택의 기회 확대 등이다. 이러한 학부제의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 내의 무용(학)과가 교육과정 운영의 차별화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등과 관련된 실질적 준비 등의 문제점 대두는 당연한 현상이기에 개선을 위한 하나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신은경, 최경희, 2002).

1) 무용학부제를 대비한 교과과정 방향설정

21세기의 시대정신을 수용한 무용학부의 기본개념을 세계화, 정보화, 과학화, 복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중심, 무용 전문인력 양성,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무용학부는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된 학생을 배출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 대학 무용(학)과가 구성 및 교육과정에 별 차이가 없다는 현행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각 대학은 당연히 배출할 인력의 수준과 성격에 맞는 학과 구조나 교육과정 조직을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목표에 따른 전문가 양성에 심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부과정은 전공에 대한 입문과정으로 그야말로 전공에 관한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끝난다고 하기는 하지만 대학원 진학 없이 바로 사회에 투입되는 졸업생을 감안해 본다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전공을 위한 보다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전문화는 전문직에 취업한 진취적인 인간을 양성화하는 데에서 구체화된다는 생각 아래 학과, 전공별 특성화를 꾀하고 전공 영역별 시설을 크게 확충하며, 취업교육 강화 역시 꾀해야 할 것이다. 무용전공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전문 능력을 인정받아 공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배출하는 인력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역할에 따른 교육편제를 가지도록 하여 세분화된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교과내용으로 학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선훈, 2001).

다음은 학부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의 예로서 미래지향적인 무용예술의 창조와 앞

서가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제도약을 기대하며 학부학생들의 전공을 무용공연전공(안무자·무용수 양성), 무용교육전공(학교무용 교사·전문무용 실기지도자·사회무용 지도자 양성), 무용이론전공(비평가·공연제작 및 연출가·움직임 분석 및 기록자·무용치료사 등 양성) 등으로 개설한 모델로서 이수교과목의 성격·졸업요건 등의 내용을 달리한 것이다. 더불어 이는 다양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이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특성화되고 전문화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 무용공연

- 무용공연과 관련된 실기 및 실습분야의 교육 강화
- 학년 간 교과목의 위계적 연계성 고려
- 학생의 요구 및 진로를 반영한 실기 중심의 교과과정
-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 전문무용지도자, 공연 연출 및 제작자, 비평가 등 공연 현장요구에 맞는 교과와 연계된 교과과정

② 무용교육 전공

- 평생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 무용교육 영역 확대 및 특성화
- 무용교육개론, 무용교육과정연구, 무용교과교재개발, 무용지도법, 무용지도실습, 무용공학, 학교무용, 평생무용교육 등 무용교육관련 과목 강화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외에 재즈, 민속무용, 댄스 스포츠 등 무용교육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실기과목 개설
- 무용교사 및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교육학 관련 기초교과 설정

③ 무용이론전공

- 무용학 분야로서 연구가 활발히 개발·진행되고 있는 무용비평, 움직임 분석과 기록, 무용 경영, 무용치료 등의 교과 영역 확대 및 전문화
- 타 전공과 연계 될 수 있는 관련교과 설정
- 무용공연 및 무용교육 전공과 협력적인 교과과정
- 실무 능력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계별 교과과정 제시

이상에 따른 무용학부제의 전공영역별 목표 및 진로 방향에 따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전공영역별 목표 및 진로방향

전공영역	목표	진로방향
무용공연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등 전문실기영역의 무용수 및 안무가 양성	국내외의 국·공립·사립·개인 무용단의 무용수 또는 안무가
무용교육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등의 전문 무용지도자 양성, 유아 및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양성유아·청소년·장년·노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들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지도할 사회무용지도자 양성	학교 특기적성 및 예술, 중·고등학교·전문학원에서 지도할 교사,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사 문화센터·구립·시립·동사무소 단위의 지역사회 시설 및 전문학원에서 지도할 지도자
무용이론	비평가	신문사·잡지 등의 언론기관 및 TV·라디오·인터넷 등 대중매체 에서 활동할 무용비평가
	무용제작 및 경영가	무용공연의 기획, 제작, 홍보 및 무용 마케팅 전문가
	움직임 분석 기록학자	CMA(Certification of Movement Analysis;공인 움직임 분석가), Labanotation 기록자, Motif Writing
	무용치료사	병원, 대학부설 무용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건강관련기관 등에서 개인상담, 진료, 재활치료 교육 등의 전문가

2) 개선을 위한 세부 원칙

- 전공기초과목 개설
- 선수과목 및 전공심화 과정 지정
- 폭 넓은 전공 선택 교과 개설
- 연계 가능 전공교과 제시
- 인증제 및 자격증 취득 관련교과 개설
- 진로와 연계된 현장실습 및 이론 교과 강화

3) 전공별 무용교육과정 내용

최근 대학교육에서의 무용은 그간 학문적, 예술적 위상을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서 가치 있는 연구 영역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무용예술 및 교육에 대한 정책적 상황의 문제로 인해 무용이 희생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범위와 수준

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 결과로서 대학 무용교육과정에서 내용면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교과목과 무용에서의 mid-way모델의 이론을 어떻게 대학교육의 맥락 안에 적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무용(학)과에서는 무용수와 안무가를 위한 교과목 이외에도 미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분야의 강조와 더불어 학위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평가 절차에 대한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부분의 학사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무용 테크닉, 공연, 안무, 레퍼토리, 기보법, 역사, 미학, 드라마 그리고 무용과 관계된 문화연구와 교육학, 사회학 등과 같은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술 경영, 무용광고, 무용비평가, 무용기록학자, 무용치료, 무용교사 등 직업과 관련된 무용교과를 개설함으로써 현장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직업상의 계획에 알맞은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다음은 하나의 예로서 무용학부 전공별 교과내용을 제시한 것이다<표 2, 3, 4>.

표 2. 무용공연전공 교과내용의 예

	전공교과	타전공 교과	현장실습
교과과정 (설정 교과 포함)	무용수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장르별 기초 이론 및 테크닉, 관련교과(한국무용: 창작무용·궁중무용·의식무용 발레: Pointes Class·Pas de Deux·캐릭터댄스·현대무용전공자를 위한 발레, 현대무용: 현대무용 중급~고급 테크닉·Contact Improvisation·발레 전공자를 위한 현대무용) 안무, 즉흥, 레퍼토리, 워크숍, 제작 및 공연, 기타: 재즈 초급~고급, 뮤지컬 극 무용, Pilates·Body Conditioning·요가 등 신체단련 및 교정법, 세계의 민속무용	해부학, 기능학, 상해예방 및 치료, 무대 미술 및 조명, 음악의 이해(국악/양악), 리듬 분석, 뮤지컬 및 오페라의 이해, 연기법, 분장법, 무대의상 등	교·내외 공연 및 발표회 참가 콩쿠르 및 무용 페스티벌에 참가 직업 무용단체 및 극장과의 산학협동을 통한 학점 취득
	안무가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각 장르별 이론 및 테크닉, 안무초급~고급, 즉흥, 레퍼토리, 워크숍, 제작 및 공연 Pilates·Body Conditioning·요가 등 신체단련 및 교정법, 재즈, 세계의 민속무용	공연 연출, 무용제작, 무대 미술 및 조명, 사진, 영상, 음악의 이해(국악/양악), 리듬 분석, 뮤지컬 및 오페라의 이해, 연기법(마임·제스처), 분장법, 무대의상 등 음악·미술·연극 등 타 예술전공과의 연계	교·내외 공연 제작 및 발표회 참가 (학생·교수진·초빙 교수와의 작업을 통한 공연경험)

〈표 3〉 무용교육전공 교과내용의 예

		전공교과	타 전공 교과	현장실습
교과 과정 (설정 교과 포함)	무용 교사	무용교육개론, 무용교수법 유치원·초등학교 무용교육과정 및 교수법,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교과 교재 연구	교육학개론,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육평가, 아동발달 개론, 아동심리학, 행동수정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생 실습(필수)
	전문 무용 지도자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각 장르별 이론 및 테크닉, 안무, 즉흥, 레퍼토리, 워크숍, 제작 및 공연,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교수법, 지도법 시연회	해부학 및 기능학, 연기법, 조명, 상해 예방 및 신체요법	일반·예술학교·문화시설·전문학원에서의 교수법 실습(필수)
	사회 무용 지도자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각 장르별 이론 및 테크닉, 안무, 워크숍, 제작 및 공연, 재즈, 댄스스포츠, 민속무용 에어로빅댄스 등의 단계별 지도법(사회무용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법), 평생무용 워크숍·요가·Pilates 등의 신체 교정 및 훈련법	교육개론, 인간발달과 운동학습,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수법, 현대인과 건강, 여가 프로그램 개발연구	문화센터·구립·시립·동사무소 단위의 지역사회 시설 및 전문학원에서의 실습(필수)

〈표 4〉 무용이론전공 교과내용의 예

		전공교과	타 전공 교과	현장실습
교과 과정 (설정 교과 포함)	비 평 가	무용미학, 무용비평입문, 무용작품 해설	예술철학, 예술학연구, 비평철학, 미학과 예술론, 예술과 비평, 현대예술의 이해, 예술과 사상	무용비평을 위한 실제적 학습(필수)
	움직임 분석 및 기록자	무용기보법(라바노테이션, 바르테니에프·모티프 라이팅 등), 무용움직임분석, 테크닉 관련교과, 창조적 표현, 공연	인류학	자격취득과정 시험준비, 교육현장에서의 지도 경험
	무용 제작 및 경영가	무용공연제작, 무용기획경영론,	예술경영입문, 예술 매니지먼트, 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 재무와 회계, 문화경제학, 문화산업, 홍보와 광고, 예술단체설립과 운영	공연예술현장체험, 공연현장실습(필수)
	무용 치료사	무용요법, 무용치료의 이해, 즉흥무용치료기법, 무용치료의 이론과 실제, 무용동작치료, 동작관찰 및 분석	심리학의 이해,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청소년발달, 정신분석이론, 아동·청소년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 성인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	무용치료특강·워크숍 참여, 임상실습(필수)

V. 결 론

21세기 대학교육에서의 무용예술은 다양한 인식의 범위 안에서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통해 안무하고, 공연하고, 감상/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이에 따른 발전된 지식과 이해를 담은 교육과정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모든 교과내용은 문화, 역사, 미학적 현상으로서의 무용예술과 작품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 이론들은 항상 무용에 적용되면서 이론과 실전을 연결시켜주는 열린 사고방식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대학 무용교육과정이 현 대학체제에 포함된 원격교육, 수시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최우수 학생을 배출하고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세계 환경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대학의 무용과 간에 교수 및 학생의 상호교환, 교육과정의 국제화와 세계화가 절실하다. 이제 한국 대학의 무용과가 세계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용 전문기술 외에 상호협력, 가치관 확립, 경영 능력 등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의 무용과는 정부 정책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의 무용학과(부)는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국내외의 주요 대학들과의 벤치마킹을 통한 학제 간, 학문적인 교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전문지식 외에도 여가선용 등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과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용학의 문제 분석과 자료 배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수많은 무용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증된 정보나 지식들을 창출, 분배하는 자료 분배(resource distribution)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무용학과(부)는 변화의 협력적인 계획, 계획된 변화의 준비, 계획된 변화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이 무용의 학문적인 체계의 추론적 사고를 인정하는데 반해서 무용지식에 대한 질적 사고는 무용교육의 전 부분에 걸쳐서 인식되고 장려되고 탐구되어야 하며, 무용과의 특성을 살려 각 종 무용발표회와 워크숍 등의 교류를 통한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 개방 제에 대비해야 하는 일과 사회교육기관 및 무용관련 협력체와의 연계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술교육과정의 개념은 무용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예술교육과정은 구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실기위주 코스와는 달리 안무 교육을 위

한 기반으로 적용되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학에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무용교육자들은 교과 지식의 구분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전체로서 예술 형식의 상호 연결성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넷째, 무용교육과정은 발견 지향적 연구와 무용훈련의 여러 측면간의 상호작용의 개념, 그리고 과정과 변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후기 현대적 사고의 주요 특성들에 의해 유도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는 미래를 향해, 뒤로는 지나간 경험들을 종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밖으로는 사실과 타인간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자아의 여러 가지 측면사이의 새로운 내적 연관을 조직하고 위로는 영성과 지성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고 아래로는 신체에 대한 지식을 더욱 고양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서울 :교육부.
- 김재은(2004), “예술교육과 무용”,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신은경, 최경희(2002), “대학 무용교육과정 운영체제 개선연구”. 이화여대, 학술진흥재단 연구 과제.
- 전선혜(2001), “21세기 이화체육의 발전방향”. 이화여대, 체육과학대 창립56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 전성연(1999), “대학 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육학연, Vol.37, No.2**.
- 정성기(2000), “새로운 세기의 도전과 대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50주년기념 학술행사 자료집.
- Andrea Mantell-Seidel(2000), “Dancing across Discipline: A 21st-Century Paradigm for Dance in the Academy”, Conference Procee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Univ.
- Betsey Gibbons(1992), “A Prismatic Approach to Analysis of Style in Dance as a Paradigm for Dance Education”. Focus on Dance VI: AAHPERD.
- Francine Lee Morin(1992), Prospects for Planned Change in Dance Education. Focus on Dance VI: AAHPERD.
- Hanstein P.(1986), “On the nature of art making in dance: An artistic process skills model for the teaching of choreograph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
- Walford, G.(1992), *The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M, Arnot & al Barton(eds) “Voicing Concern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Education Reforms”. United Kingdom: Triangle Books Ltd.